



## 애의 업계 소식

### 초고속 이동전화용 MPU 개발

일본 오므론이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에 내려받은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작동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MPU)를 개발했다.

오므론이 이번에 개발한 휴대폰용 MPU는 소프트웨어를 프로세서가 직접 처리토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동영상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단말기용으로 관심을 끌 것이다.

휴대폰용 MPU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거치도록 돼 있어 내려받은 소프트웨어의 기동이나 실행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내려받는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용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로 만드는 데, 이번 개발에서 오므론은 MPU에 이 자바를 직접 실행시키는 기능을 탑재해 소프트웨어 처리 시간을 종래의 10분의 1이하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게임이나 스케줄 관리 등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휴대폰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이 MPU는 또 기존 휴대폰에도 간단히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MT2000 단말기에도 탑재하기 쉽게 개발됐다.

오므론은 이 MPU를 자회사인 오므론소프트웨어와 공동개발했으며, 영상처리 기술은 히타치제작소의 협력을 받았다. 자바 개발업체인 선마이크로시스템으로부터는 최초의 휴대폰 전용 자바칩으로 인정받았다.

오므론은 오므론소프트웨어를 창구로 이 MPU 판매에 나서는데, 오는 2003년 1000만개를 출하할 계획이다. 또 이 칩을 장착한 고밀도 집적회로(LSI)를 개발하려는 제조업체에는 설계정보도 판매할 방침이다.

한편 IMT2000 단말기는 동영상 처리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량 탑재하기 때문에 자바를 전용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오므론이 개발한 MPU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보급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CRM SW시장 뜨겁다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고객

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시장이 전국시대에 돌입했다.

시벨이 독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독일 SAP, 미국 오라클·피플소프트 등 기업용 업무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공세가 시작돼 시장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CRM은 정보기술(IT)에 의해 생산성 혁명을 끌어내는 유망제품으로 이 시장쟁탈전이 조만간 하이테크 기업 패권 경쟁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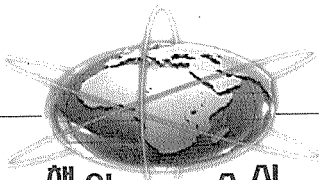
CRM은 거래처 및 고객의 특성과 구매이력을 기록해 사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성장속도가 빠르다.

미국 하이테크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00년 소프트웨어 매출은 전년대비 80% 신장한 68억 달러에 달했다. 올들어 기업의 정보화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가 넘는 시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는 전문업체인 시벨이 20% 전후의 점유율로 서서히 점유율을 올려왔다. 2위 이하는 대부분 수%에 불과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99년 이후 피플, 오라클, SAP 등 대형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잇달아 참여하



## 에의업계소식

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오라클은 올해 90일에 도입할 수 있는 CRM'을 출시하는 등 이미 시벨에 대한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99년에 CRM분야 2위였던 반티브를 매수해 시장에 참여한 피플은 최근 자사의 주력제품인 ERP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 신제품을 투입, 공세를 시작했다. 피플의 ERP와 CRM은 브라우저를 탑재한 PC만 있으면 네트워크를 경유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따로 PC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본사나 주요거점의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사적인 도입 작업을 마칠 수 있다.

ERP 최대기업인 SAP는 지난 6월 14일 미국에서 개최된 고객 이벤트에서 금년들어 전년비 50%가 넘는 페이스로 CRM소프트웨어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름에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시벨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피플과 SAP를 의식한 시벨 관계자는 "매년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사"라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RP를 이용한 대기업 공세 등 강력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공세에서 수위확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관

계자들의 시각이다.

### 올 반도체시장 21% 축소될 듯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트가 올해 전세계 반도체 칩시장이 지난해보다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C인사이트에 따르면 3분기 반도체시장이 전분기에 비해 6%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전체시장은 지난해 1770억 달러에 비해 21% 줄어든 1392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지난 85년 20%였던 최악의 감소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IC인사이트는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유럽 닷컴기업들의 몰락과 미국경기의 정체로 수많은 기업들이 새 컴퓨터 장비의 주문을 멈추고 기존 주문도 취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홈네트워킹 기술 개발 제휴

미국 IBM이 대형 반도체업체인 내셔널세미컨덕터와 제휴해 새로운 홈네트워킹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트, 스리콤, 시스코 등의 업체가 이미 진출해 있는 홈네트워킹 시장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IBM은 다중 칩 제조업체인 내셔널 세미컨덕터와 공동으로 오는 8월까지 새로운 홈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개발해 형성기인 홈네트워킹 시장에 본격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IBM과 내셔널세미컨덕터는 컴퓨터, 홈어플라이언스 등 각종 가정용 전자기기를 고속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홈게이트웨이 제품 생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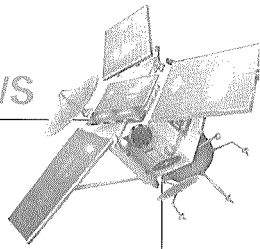
이를 위해 IBM은 세트톱박스, 핸드헬드컴퓨터 등 소형 전자제품용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웹스피어'를, 내셔널세미컨덕터는 자사의 인터넷 어플라이언스용 프로세서를 번들로 제공한다.

홈게이트웨이는 전자제품의 인터넷 접속뿐 아니라 에어컨, 보안시스템, 전기난로, 디지털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초창기인 홈네트워킹 시장이 앞으로 수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IBM에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이 미 3위 케이블TV업체인 컴캐스트의 계열사인 컴캐스트케이블커뮤니케이션과 6월 초 홈네트워킹 분야에서 제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과 컴캐스트는 인터넷,



802.11b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 기술에 상관없이 고속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홈게이트웨이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통신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도 지난해에 케이블업체들과 손잡고 홈게이트웨이 제품 판매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었다. 시스코는 현재 계속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양키그룹은 올해말까지 미국 가정의 10%인 540만 가구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시설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오라클-선, 공동 마케팅 나서

오라클과 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 연합전선을 폈다.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들을 자바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바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변환해주는 새로운 툴을 발표하며 공동 마케팅이 나서기로 했다.

선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는 오라클, BEA시스템스, IBM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양사가 선보인 새 개발 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

신들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바꾸지 않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서버페이지(ASP)를 자바 서버페이지(JSP)로 쉽게 전환시켜 준다.

양사의 합작은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대신 자신들의 제품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앞서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베이스 제품인 'SQL서버'를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으로 전환하는 툴을 발표했고 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용체계에서 자사의 솔라리스 운용체계로 전환하는 툴을 발표한 바 있다.

### 필립스 “단말기 생산 중단”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자업체 필립스는 지난 6월 26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제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필립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앞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는 대신 제조업체들에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기업과 협력형태로 제조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자사 상표를 내세워 영업 및 마케팅에 주력하겠

다고 덧붙였다.

필립스는 이번 결정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신 등을 통해 필립스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직접 생산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여러번 제기됐으나 필립스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필립스가 단말기 생산을 중단한 것은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놓고 노키아·모토로라 등 거대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출고가격이 낮아져 직접 생산에 따른 이익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필립스는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을 맞추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와 시장조사기관들은 필립스가 이동전화 단말기 사업을 벌여 지난 4년간 8억 5000만유로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소니 DVD플레이어 증산

소니가 올해 DVD플레이어를 60%나 증산키로 결정함으로써 DVD플레이어가 소니의 주력 전자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계 DVD플레이어 메이커 1위인 소니는 지난해 전세계 DVD 판매대수 1600만대 가운데 25%인 400만대를 판매했으며



## 해의 업계 소식

올해에는 생산대수를 대폭 늘려 700만대를 출하할 예정이다.

소니의 이번 증산 결정은 올해가 DVD플레이어 대중화의 원년이라는 판단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소니는 이를 위해 자사 DVD 플레이어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의 생산라인을 70% 증설하고 일본 지바현(懸)과 멕시코의 생산라인도 풀 가동할 방침이다.

이미 올 초부터 일본 JEITA(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IDC·캐너스 인 스탯 등 다수 시장조사기관들은 일제히 DVD 플레이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같은 시장 성장과 아울러, 세계 DVD플레이어 시장은 올해 들어 업계 빅3인 소니, 파이오니어, 도시바의 점유율이 정체를 하는 가운데 파나소닉 브랜드의 마쓰시다, 삼성전자, LG전자등

이 보급형 DVD플레이어로 물량 공세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2위인 파이오니어를 제치고 올해 세계 DVD시장 점유율 2위를 노리고 있다. 소니는 이들 업체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DVD 플레이어 증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니의 증산은 곧 DVD플레이어 업계의 연쇄 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DVD플레이어 가격도 최고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 NEC·지멘스-유럽 18개 이동사업자 차세대 이동장비 공급계약

일본의 NEC와 제휴사인 독일의 지멘스는 유럽의 18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차세대 이동통신(3G)장비 공급계약을 했다.

이번 3G장비계약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매출은 NEC와 지멘스가 나누게 된다.

NEC측은 이번 3G장비 계약 업체에는 영국·포르투갈·스페인의 이동통신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업체명과 계약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NEC가 앞서 발표한 올해 자

사의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매출 예상치는 12억~13억달러다.

이번 계약은 NEC와 지멘스는 물론 이동통신업계 전반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신 장비부문에 있어 에릭슨 등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NEC와 지멘스가 한꺼번에 18개 통신사업자와 장비 공급계약을 한 만큼, 이번 계약으로 칩체인 3G장비 구매계약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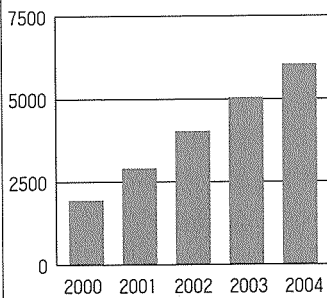
NEC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유럽 통신사업자들이 매입한 3G용 주파수가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더이상 장비 구매를 연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다다랐다”고 밝힌 뒤 “3G장비 구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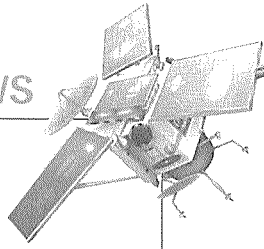
### AOL타임워너-도시바 디지털영화 사업 제휴

미국의 AOL타임워너와 일본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도시바가 디지털영화부문에 협력하기로 했다.

AOL의 공동최고운영책임자는 도시바의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계열사인 워너브라더스영화가 제작한 영화를 위성을 통해 전세계 극장에 배급할 계획이며 이 계획이 3~5년내에 실현되길 바라고 있으며, 위성배

전세계 DVD플레이어 출하량 전망





급시스템이 실시되면 배급비용을 60~7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OL타임워너는 일본의 유통업체인 마이칼과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워너마이칼상사를 통해 일본 전역의 마이칼 아울렛에서 복합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바는 AOL타임워너의 지분을 0.1% 갖고 있다.

### 일, PDA매출 작년 93.5%증가

지난해 일본의 개인휴대단말기(PDA) 시장이 급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민간연구소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야노(矢野)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내 PDA의 출하대수는 모두 136만5600대로 전년에 비해 무려 81.4%나 증가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862억엔으로 9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노경제 연구소는 지난해 봄 일본의 업체들이 미국 팜사의 '팜OS'를 탑재한 PDA를 발매함에 따라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샤프가 23%를 차지, 1위를 기록했으며 NEC(18%), 핸드스프링(15%), 팜(13%) 등이 그 뒤를 이은 것

으로 조사됐다.

크기별로는 수첩크기의 PDA가 지난해 시장의 65.6%를 차지했으며 키보드가 붙어있는 소형 단말기는 34.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운영체제(OS)에 있어서는 포켓PC나 윈도우즈CE 등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 44.9%를 차지했으며 팜OS와 샤프가 각각 36.5%와 18.2%를 차지했다.

### 일본서 세계 최초로 구부릴 수 있는 유기EL 신소재 개발

종이처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는 유기EL 디스플레이 신소재가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일본 야마가타대학 연구팀과 나라현(縣)의 LCD 부품업체인 나카세 인데코가 공동 개발한 새 유기EL 소재는 플라스틱 막에 발광재료와 전극을 입힌 뒤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방수 코팅이 돼 있다.

기존 유기EL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내부의 전극에 물기가 닿지 않도록 유리판을 덮어 접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무겁고 두꺼웠다.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연결하면 색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어떤

각도에서나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고 전력 소모도 기존 LCD보다 적다.

연구팀은 오는 가을부터 이동전화 스크린시장을 타깃으로 새로운 소재의 유기EL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월 200만장의 플라스틱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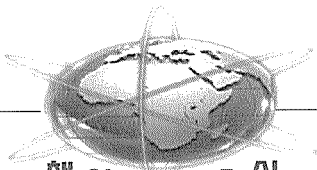
### 미 양방향TV업체 속속 중국 진출

미국 양방향TV업체들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리버릿테크놀로지 등과 경쟁하고 있는 양방향TV업체인 오픈TV가 지난 달 초 미국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 현지업체인 상하이케이블네트워크와 제휴해 중국에 상륙한 데 이어 최근 리버릿테크놀로지도 중국 현지업체인 글로벌넷로드밴드(GNI)와 공동으로 케이블TV 합작사를 설립하며 중국시장에 발을 디뎠다.

광둥에 본부가 있는 GNI는 중국의 케이블TV 네트워크업체들이 공급하는 세트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리버릿이 이번 합작사에 투자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 해외 업계 소식

리버릿은 내년 말까지 합작사를 통해 20만가구의 케이블TV 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GNI의 최고경영자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광둥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하는 광둥 케이블이 우리의 첫 고객이자 최대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 말까지 리버릿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20만대의 세트톱박스를 설치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일본 전자업계, 실적 전망치 "내려"

일본 전자업체들이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후지쓰·히타치·NEC·도시바 등 주요 일본 전자업체들이 반도체 가격 폭락과 개인용컴퓨터 및 이동전화 수요 급감으로 향후 몇주간 최악의 영업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적 하락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칩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전자업체들의 실적 악화 발표로 관련업계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업체들은 미쓰비시와 도시바에 약 50%의 순익을 발생시켰다.

최근 몇주간 트랜스매타, 필립

스, 인피니온의 실적악화 소식이 나돌면서 도이체뱅크 그룹, 노무라증권, 리먼 브라더스같은 투자은행들이 일본 반도체생산 업체들의 투자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이미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번 실적 하향조정的主 요인은 유럽지역에서 이동전화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PC 판매 격감 및 가격 폭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전자업체들은 지금까지 전자기기에 대한 감산은 했지만 미국과 유럽 경쟁업체들이 취한 감원은 하지 않았다.

도시바는 최근 이동전화용 트랜지스터를 공급하는 공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메모리 및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생산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의 순익이 당초 예상치 500억엔에서 200억엔(1억6000만 달러)으로, 히타치의 경우 예상치 90억엔에서 30억엔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IBM, 210기가급 실리콘 트랜지스터 개발

펜티엄4보다 100배나 빠른 210GHz의 세계 최고속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개발됐다.

IBM은 기존 고성능 통신용

칩보다 두배 이상 빠르고, 인텔의 최신 데스크톱 프로세서인 펜티엄4보다 100배나 빠른 새로운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새 트랜지스터는 기존의 통신용 칩보다 성능이 80% 이상 향상됐고, 전력 소모는 50% 이하로 줄었다. 특히 기존의 갈륨 및 인듐 소재가 아닌 실리콘 게르마늄(SiGe) 소재를 사용, 고속 통신용 칩의 대중화에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IBM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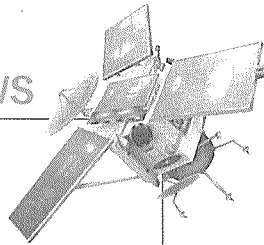
기존의 갈륨 및 인듐 소재 통신칩은 비쌀 뿐 아니라 발열량이 많아 소비자용 기기에 탑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일례로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단 몇분만 수신하더라도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됐다.

그러나 실리콘 기반의 칩은 발열량이 현저히 낮아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처리하게 될 휴대전화 단말기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IBM은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웨스트는 이날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해, 가정등 옥내까지 일일이 광통신망을 깔지 않고도 옥내 무선통신을 보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BM은 실리콘 게르마늄 기반 트랜지스터의 속도가 300Ghz까지는 무리없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세계 CDMA가입자 연내 1억 돌파

전세계 CDMA(코드분할다중 접속) 방식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9천만명에 달한다고 CDMA개발자그룹(CDG)이 밝혔다.

CDG에 따르면 전세계 CDMA방식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이 기간중 25%가 늘어난 4천만명으로 최대의 CDMA시장으로 부상했으며 미주는 1590만명으로, 증가율이 무려 144%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가입자수는 3380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CDG사무국장은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이 CDMA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다 앞으로 몇개월 안에 가입자는 1억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CDMA기술에 있어 새로운 신기원이 이룩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T-DT, 유럽 3G 서비스 위해 제휴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BT)과 독일의 도이치텔레콤(DT)은 지난 6월12일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3G) 투자재원 절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3G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BT 와이어리스(BT Wireless)와 T-모바일(T-mobile) 사이의 제휴를 통해 3G 네트워크 구성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BT와 DT 관련 자회사들은 현재 양해 각서를 체결한 단계이며 올해 9월 이전에 확정적인 협력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BT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기지국 설치 비용 등 3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10년간 30%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 시작 일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BT는 유럽 3G 사업권을 따내는데 100억 파운드(약 1조 8000억원)를 지불했으며 네트워크 구성비용으로 100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DT 역시 3G 사업권 획득에 160억 유로(약 1조 800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BT는 올해 연말까지 100억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를 없애기 위해 경쟁사인 보다폰에 재팬 텔레콤 등의 주식을 48억 파운드(약 86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또 14분기 결산결과 17억 파운드(약 3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